

http://dx.doi.org/10.17703/JCCT.2019.5.3.85

JCCT 2019-8-10

- 창작가무극 <윤동주, 달을 쏘다>에 나타난 윤동주 시 활용 양상 연구

A study on the usage patterns of Yun Dong-ju's poetry in the musical <Yun Dong-ju, Shoot the Moon>

손미영

Son, Mi-young

요약 윤동주의 시와 그의 표상은 다양한 영상 및 극 매체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 매체 및 장르적 특성에 따라 윤동주의 표상과 그의 시는 선택되고, 변주된다. 문학이 다양한 매체들과 통섭하는 현대에서 한 시인의 초상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은 텍스트가 한 인물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읽어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윤동주의 시가 다른 장르의 예술적 텍스트들에서 활용된 방법을 검토하는 한편으로, 각 텍스트들의 시문학과 통섭 양상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창작가무극 <윤동주, 달을 쏘다>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윤동주, 달을 쏘다>에서 윤동주의 시는 감정을 극대화하는 장치이자, 인물의 의지를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대사의 형식으로 활용되었다. 창작가무극 <윤동주, 달을 쏘다>가 시를 통해 '윤동주'의 감정을 격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가무극 즉, 뮤지컬은 다른 예술 장르에 비해 장르적 특성상 인물의 미세한 감정 변화를 전달하기에 제약이 따른다. 이로 인해 가무극은 인물의 감정 표현이 좀 더 격정적이며, 서사의 진행 또한 극적이며, 영화와 가무극이 조명하는 시인 윤동주의 면모 또한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영화 <동주>는 시인 윤동주를 순수한 문학청년으로 형상화하고자 한다면, 창작가무극 <윤동주, 달을 쏘다>는 윤동주의 시를 저항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재조명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어 : 문학, 시, 창작가무극, <윤동주, 달을 쏘다>, 윤동주, 표상

Abstract Yun Dong - ju 's poetry and his representations are used in various visual and dramatic media. According to its medium and genre characteristics, Yoon Dong - ju 's representations and his poems are selected and changed. It is also the process of reading what the text is trying to convey to the public through a single person. In this study, Yoon Dong - joo 's poetry was compared with other poetry of poetry. Particularly, the discussion was focused on the creative actor <Yun Dong-ju, Shoot the Moon>.

If the creative drama <Yoon Dong-ju, shoots the moon> is transmitting the feelings of Yoon Dong-ju through the city, the film <Dongju> conveys the poem of Yoon Dong-ju. Gamuplays are more restrictive than the movies because of their genre. As a result, the emotional expressions of the characters are more intense, the progress of the narrative is also dramatic, and the aspect of Yun Dong - ju, a poem illuminated by the movie and the drama, also differs. If the film <Dongju> aims to portray poet Yoon Dong-ju as a genuine literary youth, the creative poet <Yoon Dong-ju, shoots the moon> reinterprets Yun's poetry as having a meaning of resistance.

Key words : Literature, Poem, Musical, Cinema, <Yun Dong-ju, Shoot the Moon>, Yun Dong-ju

*정회원, 광운대학교 인제니움학부 (주저자)
접수일: 2019년 5월 4일, 수정완료일: 2019년 5월 27일
게재확정일: 2019년 6월 15일

Received: May 04, 2019 / Revised: May 27, 2019

Accepted: June 15, 2019

*Corresponding Author: myshon@kw.ac.kr

Dept. of Ingenium, Kwang woon Univ, Korea

I. 서론

운동주의 시에는 문학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고뇌가 남아있다. 이는 그가 식민지시기라는 비극적 시대를 살아가는 문학청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문학으로 무엇을 하려 하는가에 관한 질문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문학가들에게 유의미한 근원적 질문이기도 하다. 때문에 그간 운동주의 시를 읽는 관점에는 순수문학으로서의 미학적 조명과 운동주의 시의 저항적 면모에 주목하는 두 가지의 큰 해석적 흐름이 존재하여왔다. 이는 운동주의 시와 시인으로서의 운동주의를 어떠한 인물로서 바라보느냐에 관한 근본적인 차이를 배태한다. 그리고 다양한 미디어 텍스트들이 생산하고 있는 운동주의 표상에도 이러한 시각차는 내재되어 있다. 예컨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광복절 특집 방송이었던 <운동주의, 그 죽음의 미스터리>에서는 운동주의 시가 아니라 후쿠오카 형무소에 복역하였던 운동주의 죽음의 원인을 추적하고 그의 삶에서 민족 운동과 관련한 부분을 새로이 조망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시인 운동주의가 어떻게 대중매체에 표상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르의 운동주의 표상을 비교 분석하는 일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2년 초연 이후, 최근까지 여러 번 공연된 창작가무극 <운동주의, 달을 쏘다>를 주요한 해석의 대상으로 삼아 시가 창작가무극과 통섭하는 양상 및 장르적 특성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운동주의, 달을 쏘다>는 한국의 순수 창작극이자 시인을 그 주인공으로 한 창작가무극로서, 최근인 2019년 3월까지도 공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매체에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식민지시기에 살았던 시인을 창작가무극으로 극화하고 있는데다가 대중의 호평을 받아내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라 할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대중예술이 다양한 장르들의 통섭을 보여주고 있다는 기존의 논의[1]를 감안한다면, 운동주의 표상이 다양한 장르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창작가무극으로서의 <운동주의, 달을 쏘다>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2015년에 개봉한 영화 <동주>에서 등장한 '몽규'와 '처중' 등의 인물 구성은 창작가무극 <운동주의, 달을 쏘다>의 기본적인 인물 구성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두 텍스트 모두 운동주의 생을 재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즉, 한 사람의 생애를 어떠한 시점에서 구성하고 있으며, 그가 쓴 시 작품들을 어떻게 조명하고, 또한 영화적으로, 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우선적으로 <운동주의, 달을 쏘다>에서 운동주의 시가 극 안에서 어떻게 제시되고 활용되었는가를 검토한다. 영화 <동주>에 관한 논의와 달리 <운동주의, 달을 쏘다>에 관한 논의는 매우 희소한 상황이다. 시인 운동주의와 운동주의 시를 활용한 미디어 텍스트들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미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여러 번의 앵콜 공연을 거친 이 창작가무극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까닭을 극장에서 일회적으로 관람할 수밖에 없는 극의 장르적 특성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편의 논문[2]~[5]을 통해 주요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 <동주>와 달리 <운동주의, 달을 쏘다>에 관한 논의는 단 한 편의 의미 있는 논문[6] 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감안하여, 본고는 영화와의 비교 분석을 진행하기 이전에 <운동주의, 달을 쏘다>가 시를 활용하는 방식과 서사 및 인물과의 관련성 등을 우선적으로 면밀히 분석할 것이다.

이어서 2장에서는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창작가무극 <운동주의, 달을 쏘다>의 장르적 특성에 관하여 논한다. 창작가무극이라는 특성을 명료히 파악하기 위하여, 본고는 주로 2015년에 개봉한 영화 <동주>와 <운동주의, 달을 쏘다>의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분석한다. 이 때 장르적 차이에 기인하는 연출적, 서사적 차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 운동주의를 어떻게 표상화하고, 그의 시를 활용하는 것에 집중하여 비교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는 한 편의 시와 한 사람의 시인이 어떻게 다양한 미디어 텍스트들을 관통하면서 변주되고 새로이 표상되는가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II. 창작가무극 <운동주의, 달을 쏘다>의 운동주의 시 활용 양상 분석

창작가무극 <운동주의, 달을 쏘다>는 운동주의 시와 노래를 적절히 배치하고 있다. 특히 이 창작가무극에서 배우에 의해 낭독되는 시편들은 운동주의 대표작이자, 그의 감정을 격렬하게 드러난 작품들이다. 이 시편들이 등장하는 장면들은 배우가 넘버를 노래하기 전에 배치되어 있다. 예컨대 운동주의 시 「십자가」와 「아우의 인상화」

가 방백의 형태로 제시된 뒤, 극 중 ‘운동주’와 ‘선화’의 넘버가 시작되는 형식이다. 시 「십자가」는 시인 운동주의 기독교적 이미지와 고뇌가 잘 드러난 시편으로 극의 분위기와 스승을 잃은 ‘운동주’의 참담함을 효과적으로 관객들에게 전달한다.

쫓아오든 햇빛인데
지금 敎會堂 꼭대기
十字架에 걸리었습니다.

尖塔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수 있을까요.

鍾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피로웠던 사나이,
幸福한 예수·그리스도에게처럼
十字架가 許諾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어가는 하늘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운동주, 「十字架」

위 시 「십자가」는 이 창작가무극에서 극적으로 방백되는 시들 중 하나이다. 이 시는 운동주의 시세계에서 변곡점을 이루는 중요한 작품으로서, 존재의 숭고미와 긴장을 보여주는 시작품이자, 기독교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현실을 초극하고자 하는 시로도 해석되고 있다.[7] 기존의 논의들이 「십자가」를 운동주의 시적 이미지와 특징이 잘 드러난 시로 평가하고 있다면, 이 뮤지컬에서는 시 「십자가」를 극 속 인물인 ‘운동주’가 자신의 죄책감과 함께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 시가 등장하는 것은, 조선어로 강의를 진행하던 조선인 교수 ‘외솔 선생’이 파면되고 일본인 순사에게 검거된 이후이다. 창작가무극 <운동주 달을 쏘다>는 이제 아이들도 “우리말로 말할 수 없겠지요”라는 말로 슬퍼하며, 시 「십자가」를 방백으로 읊는다. 이 장면에서 시 「십자가」는 ‘운동주’가 우리말로 글을 쓰지 못하게 된 현실에 비통

해하는 한편으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시를 쓰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을 표현하는 한 방식으로 쓰인다. 배우는 3연의 “중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라는 부분에서 엄혹한 현실 속에서도 계속해서 시를 쓰고자 하는 자신에 대한 자책의 감정을 대사의 톤으로 표현한다.

이로써 이어지는 4연과 5연의 “십자가가 허락된다면//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어가는 하늘밑에/조용히 흘리겠습니다”라는 부분은 3연의 감정과 이어지며 더욱 극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뿐만 아니라 이 장면에서 제시된 「십자가」의 낭독은 현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운동주’의 의지의 표명으로도 읽힌다. “조용히 피를 흘리겠습니다”라는 시의 마지막 행은 일본 제국주의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여, 자신의 생명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대사로도 해석될 수 있는 까닭이다. 때문에 시 「십자가」는 창작가무극 「운동주, 달을 쏘다」에서 ‘운동주’를 어떤 인물로 상상하고 극을 전개하고 있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 시의 방백 이후, 등장한 ‘선화’는 ‘운동주’의 낙담과 죄책감을 위로한다. ‘선화’는 ‘운동주’의 시를 감명깊게 읽었다고 말하며, 시 「아우의 인상화」를 낭독한다. ‘운동주’는 “선생님이 잡혀가고 동료가 전쟁터로 끌려나가는 이 시국에 한가로이 책에 기대고만 있는 제 모습이 창피합니다.”라고 그 자신의 괴로움을 고백하지만, ‘선화’는 도리어 “시를 써야죠, 우리말로 된 아름다운 시.”라고 말한다. “이 시대의 우리를 붙잡아줄 든든한 밧줄 같은 시”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어지는 두 사람의 넘버 <얼마나 좋을까>는 엄혹한 현실 속에서 위로가 되는 시에 대한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다. ‘운동주’와 ‘선화’가 함께 부르는 <얼마나 좋을까>를 지나며 ‘운동주’는 시 쓰기에 대한 의미를 찾아나가며, ‘선화’와의 관계 또한 진전된다. 이 넘버에서 ‘운동주’는 “매일 시와 함께 숨 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며 시에 대한 그의 감정을 노래한다. 이처럼 창작가무극에서 ‘운동주’가 시의 의미를 되묻는 장면은 여러 번 등장한다. 특히 식민지시기를 사는 조선인 청년에게 시는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의 넘버들은 대부분 시의 낭송과 함께 제시된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르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세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서시」

윤동주의 대표작인 「서시」는 그의 시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하늘과 바람과 별이 모두 등장하는 시이다. 창작가무극에서 이 시는 배우의 강직한 목소리로 낭송된다. 그리고 직후에 이어지는 넘버는 다름 아닌 <시를 쓴다는 것>이다. 즉, 이 창작가무극은 윤동주의 「서시」를 통해 인물 '윤동주'가 시를 쓴다는 것이 저항의 의미를 띠고 있었음을 관객들에게 암시한다. 무엇보다도 1연과 2연의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르러/한점 부끄럼이 없기를”바라는 시인에게 시쓰기는 시대의 부조리와 폭력에 저항하는 방식이었으리라는 것이다. 이에서 더 나아가 넘버 <시를 쓴다는 것>의 중간에서 배우는 윤동주의 「쉽게 써워진 시」의 일부를 방백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의 부분과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최후의 나”의 부분만을 읊음으로써 ‘윤동주’의 저항적 성격을 부각시킨다.

이 창작가무극이 선택하고 있는 윤동주의 시편들이 주로 후반에 창작된 것이며, 의지의 표명인 부분을 취사 선택하여 제시하고 있음은 <윤동주, 달을 쏘다>가 시인 윤동주를 어떠한 인물로 그려내고자 하는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특히 「십자가」와 「서시」는 모두 부분이 아닌 전문을 배우의 방백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윤동주가 시를 쓰는 그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에서 벗어나 현실에 대한 저항의 한 방편으로서의 시 쓰기로 나아가는 과정에 놓여 있음을 예상하게 한다. 이 때 시는 변주되거나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제시한다. 이로써 <윤동주, 달을 쏘다>는 이른바 저항적 성격의 시인으로서의 윤동주를 조명하고, 창작가무극 속 인물 '윤동주'의 감정 변화를 드러내는 데에 윤동주의 시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창작가무극 <윤동주, 달을 쏘다>는 시인 윤동주의 생을 극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이 재구성과 극적 연출의 과

정에서 시는 노래 안으로 스며들기보다는, 도리어 배우가 관객들에게 방백의 형식으로 낭송하는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극의 연출은 인물 '윤동주'의 목소리를 통해 이미 세상을 떠난 시인의 시를 생생하게 현실로 불러내오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극장 안에 일종의 시인의 현전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관객들로 하여금 더욱 극적인 감정을 느끼고, 인물에 몰입하도록 한다. 윤동주의 시는 극 속에서 강력한 전달력을 지닌 방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뒤이어 등장하는 넘버들은 이들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는 창작가무극 <윤동주, 달을 쏘다>가 일반에 익숙한 시인인 윤동주의 생애를 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의 앵콜 공연을 이어갈 수 있는 지력이 어디에 기인하는가를 짐작케 한다. 바로 윤동주의 시가 지닌 힘을 신뢰하여서, 시를 변주하는 대신 배우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적으로 재현함으로써 관객들에게 더욱 큰 감동과 감정적 동화를 불러일으키는 까닭일 것이다. 그러므로 <윤동주, 달을 쏘다>의 성공은 시와 창작가무극이라는 대중적 장르가 통섭함으로써 대중들에게 더욱 큰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한 사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창작가무극 <윤동주, 달을 쏘다>의 장르적 특징

2015년 개봉한 이준익 감독의 영화 <동주>는 시인 윤동주를 식민지시기를 살았던 평범한 문학청년 '동주'로 그리고 있다. 이 영화는 여러 장면에서 창작가무극 <윤동주, 달을 쏘다>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시각과 서사의 진행 방식을 보여준다. 예컨대 인물의 구성에서 <윤동주, 달을 쏘다>에는 등장하지 않는 일본인 여성이 <동주>에서는 '동주'의 영문판 시집 출판을 돕는 인물로 등장한다거나, 뮤지컬에 비해 강제중의 역할이 축소되어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특히 <윤동주, 달을 쏘다>의 '선화'는 <동주>의 '여진'과 달리 '윤동주'와 직접적인 정서적 교류를 나눈다. '윤동주'가 시를 쓰고자 하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낄 때 용기를 북돋워 주기도 하며, 일본 유학 중에는 마음을 담은 편지를 주고받기도 한다. 영화 <동주>가 '여진'의 결혼 소식에 분노하면서도 마음을 접는 것과는 달리 뮤지컬의 '선화'는 '동주'가 절명하는 마지막 장면에서도 목소리로 등장하여 그에게 “시를 듣고 싶다”고 말한

다. 영화와 달리 극이 '선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윤동주에게 시의 의미란 무엇이었는데 관한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하기 위한 방식이었던 것으로 읽힌다. 즉, 창작가무극에서 '선화'는 '윤동주'의 시를 읽고 위안을 받는 일반적인 독자를 대표하는 동시에, '윤동주'로 하여금 시로 시대에 저항할 수 있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인물로 활용되고 있다.

인물 활용에서의 차이는 송몽규나 강처중을 활용하는 방식에서도 두드러진다. 영화 <동주>는 '동주'가 '몽규'에 대한 애정과 그 만큼의 질투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는 반면, 뮤지컬은 철저히 '윤동주'를 서사의 중심에 놓고 전개된다. 이는 섬세한 감정을 표정이나 세밀한 카메라 워크 등으로 보여줄 수 없이 대사나 방백, 넘버 등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창작가무극의 장르적 특성에 기인한 연출이기도 하다. 때문에 창작가무극은 강처중이 주도하는 학생 시위 장면 등을 통해 이들이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던 것으로 그려내고 있다. <동주>의 '몽규'가 암살을 시도하였다는 내용이 순사의 발언에 의하여 전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주'는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이 암살자로 보입니까"라고 외치기까지 한다.

즉, 섬세한 감정 표현의 한계와 공간적 배경의 한계 등으로 인해 창작가무극 <윤동주, 달을 쏘다>는 등장인물들을 영화에 비해 좀 더 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뮤지컬 속 인물 '윤동주'는 방백과 대사 등을 통해 시를 쓰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창씨개명에 대한 죄책감 등을 토로한다. 그러나 영화 <동주>는 윤동주의 창씨개명에 관한 감정 등은 표현하고 있지 않다.

도리어 엄혹한 현실 속에서 시를 쓰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는 것은 '몽규'이며, 시의 의미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동주'이다. 즉, 시 쓰기에 부끄러운 감정을 토로하는 '윤동주'를 위로하며 "총 대신 주어진 연필로" 싸운다고 외치는 주변 인물들을 보여주는 <윤동주, 달을 쏘다>와는 정반대의 구성인 것이다. 특히 시 「별 헤는 밤」과 「아우의 인상화」를 제시하는 장면에서 영화와 뮤지컬은 시를 활용하는 방식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다음의 장면들을 보자.

위의 장면은 영화 <동주>에서 「별 헤는 밤」이 제시되는 장면과 창작가무극 <윤동주, 달을 쏘다>에서 「별 헤는 밤」을 배우가 읊는 장면이다. <동주>에서 「별 헤는 밤」은 순수한 청년 '동주'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제시



그림 1. 영화 <동주>의 한 장면
 Figure 1. A scene in a movie <Dongju>



그림 2. 뮤지컬 <윤동주, 달을 쏘다>의 한 장면
 Figure 1. A scene in a musical <Yoon Dong-ju, Shoot the Moon>

된다. 「별 헤는 밤」은 후쿠오카 감옥 안에서 병색이 완연한 '윤동주'의 모습과 함께 처음 시작된다. 그러나 배우의 담담한 낭송과 함께 카메라는 쇠창살 밖의 밤하늘로 뻗어나가며 영화의 흐름을 그들이 가장 행복했던 연희전문 시기로 이어간다. 그리고 시는 '동주'와 '여진'이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를 함께 걷는 장면에서 다시 등장하며 영화에서 가장 서정적인 씬을 연출한다.

이에 비해 창작가무극 <윤동주, 달을 쏘다>는 가장 비극적인 결말의 장면에서 시 「별 헤는 밤」을 활용하고 있다.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윤동주'는 병든 몸으로 잃어버린 사람들을 그리워한다. 이 때 '선화'의 목소리와 '몽규'와 '처중'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목소리들은 그에게 "멋진 시 한 편 읊어봐라!"라고 외치며 사라지고, '윤동주'는 괴로워하면서도 시 「별 헤는 밤」을 읊는다. 영화의 「별 헤는 밤」이 배우의 내레이션으로 담담하게 제시되었던 것과 달리, 창작가무극의 「별 헤는 밤」은 분노와 슬픔으로 인해 울먹이는 '윤동주'의 격정적인 목소리로 제시된다.

이 때 무대는 안전한 가운데 초록색의 조명을 '윤동주'

에게만 비춤으로서 배우의 푸른색 죄수복을 더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 한편으로 배우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춰서 장면의 비극성을 더한다. 영화에서 시가 아름다운 이름들을 불러보는 연에서 그치고 있다면, 창작가무극은 시의 마지막 연인 “내 이름자 묻힌 무덤 우에도/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외다”를 강하게 외침으로써 비극성을 극대화한다. 뿐만 아니라, 시를 낭독한 직후 ‘선화’와 ‘몽규’, ‘처중’의 배우들이 “동주야 너는 무엇이 되고 싶으니?”라는 질문에 ‘윤동주’는 시 「아우의 인상화」를 인용하여 “사람!”이라고 외치며 절명한다.

이러한 창작가무극의 연출은 결국 윤동주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에 따른 결과이다. 즉, 영화 <동주>가 순수하고 평범한 문학청년으로서 윤동주를 조명하는 반면에, 창작가무극 <윤동주, 달을 쏘다>는 윤동주를 엄혹한 시대에 문학으로 폭력에 저항하고자 하였던 한 시인의 초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창작가무극은 영화에 비해 그 감정을 더욱 격하게 표현하는 한편으로, 극 속 ‘윤동주’의 죽음을 비극적으로 처리한다. 영화 <동주>에서 ‘동주’의 죽음이 고요하게 누운 시신의 얼굴로 처리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윤동주, 달을 쏘다>가 표상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문학청년으로서의 윤동주가 아니라, 문학과 시를 통해 저항하고자 하였던 식민지 치하 조선의 문학가였던 것이다.

저 달을 원망하며 돌을 찾아
저 달을- 향해 또 다시 던진다

던져도 던져도 죽어라 던져도
내 머리 위에서 빈정덜 달이지만
뜨는 해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오
친구여 우리에게 내일은 없으니

좀 더 탄탄한 갈대로
화살을 삼아서
무사의 마음으로
무사의 마음으로 달을 쏜다
(중략)

오늘도 내일도 나는 무사의 마음으로
너를 쏜다
시를 쏜다
삶이 쓰다

달을 쏘다

-가사 <달을 쏘다> 부분

위의 넘버는 극의 제목이기도 한 <달을 쏘다>이다. 윤동주의 산문 「달을 쏘다」의 부분을 차용하여 변주한 이 넘버에는 이 극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윤동주’의 노래를 통해 직접적으로 전달된다. 극 속의 ‘윤동주’가 쏘아 가르고자 하는 것은 그림자를 드리우며 마치 비웃듯이 내려다보고 있는 달이다. 이 가사에서 달은 한계가 명료하게 지어진, 그리하여 투쟁할 수밖에 없는 식민지 조선의 현실일 것이다. 그러므로 ‘윤동주’는 “무사의 마음”으로 시를 쓴다고 노래한다. 결말부에서 제시되는 이 넘버로 인해 관객들은 시인 윤동주의 순수하고도 아름다운 그의 시편들에 내재되어 있는 저항 정신과 부조리한 세상을 향한 분노를 발견하게 된다.

이처럼 가무극 <윤동주, 달을 쏘다>는 저항 시인으로서의 윤동주의 표상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구성되었다. 영화 <동주>가 ‘몽규’나 ‘처중’의 독립운동에 장면을 할애하기 보다는 ‘동주’의 삶과 시대에 대한 문학적 고뇌에 더 많은 장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저항 시인으로서의 윤동주 표상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윤동주, 달을 쏘다>는 장르의 명칭인 창작가무극답게 화려한 집단 군무와 합창 등으로 이들의 독립운동을 극적으로 그려낸다. ‘외솔 선생’이 조선어가 민족정신의 근원임을 강단에서 외치는 마지막 수업 장면이나, 세 사람이 경성에서 부르는 넘버 <경성 경성>, 그리고 강처중이 주도하는 시위의 장면 등의 다양한 부분에서 음악과 무용이 결합된 화려한 장면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또한 창작가무극으로서 이 극이 많은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저력 중 하나였을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영화와 극이 각각 윤동주를 표상하고, 그의 시세계에 관하여 논할 때에 오랫동안 거론되어 왔던 큰 두 가지 흐름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두 미디어 텍스트가 보여주는 시와의 통섭 양상은 이후로도 문학과 다른 미디어 예술이 일반의 인식만이 아니라 학술적 논의에도 기반 한 수준 높은 텍스트를 창작해 낼 수 있으리라는 긍정적 전망을 가능케 한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윤희동의 시가 다른 장르의 예술적 텍스트들에서 활용된 방법을 검토하는 한편으로, 각 텍스트들의 시문학과 통섭 양상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창작가무극 <윤희동, 달을 쏘다>와 영화 <동주>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창작가무극 <윤희동, 달을 쏘다>에서 윤희동의 시는 감정을 극대화하는 장치이자, 인물의 의지를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대사의 형식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본고는 <윤희동, 달을 쏘다>가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는 시 「십자가」와 「서시」를 중심으로 이 가무극이 윤희동의 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세밀하게 검토하였다. 「십자가」는 식민지 현실 하에서 시를 쓰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윤희동의 내면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낭송되었다. 이러한 인물의 감정은 시를 통하여 관객에게 전달되었으며, 그 비감함이 더욱 극대화한다. 또한 「서시」는 이후, ‘윤희동’가 시를 쓰는 것을 통하여 현실의 폭력에 저항하리라는 의지를 다지는 장면에서 등장하였다. 특히 이 시의 내용은 이어지는 넘버 <시를 쓴다는 것>을 통해 문학 작품을 통해 식민지 현실에 저항하고자 하였던 윤희동과 식민지의 지식인 청년들의 내면을 전달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창작가무극 <윤희동, 달을 쏘다>가 시를 통해 ‘윤희동’의 감정을 격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면, 이에 반해 영화 <동주>는 윤희동의 시를 담담하게 전달하고 있다. 가무극은 영화에 비해 장르적 특성상 인물의 미세한 감정 변화를 전달하기에 제약이 따른다. 가무극은 인물의 감정 표현이 좀 더 격정적이며, 서사의 진행 또한 극적이다. 이러한 장르적 차이는 영화와 가무극이 조명하는 시인 윤희동의 면모에도 반영되었다. 영화 <동주>는 시인 윤희동을 순수한 문학청년으로 형상화하고자 한다면, 창작가무극 <윤희동, 달을 쏘다>는 윤희동의 시를 저항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재조명하고 있는 것이다.

윤희동의 시와 그의 표상은 다양한 영상 및 극 매체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 매체 및 장르적 특성에 따라 윤희동의 표상과 그의 시는 선택되고, 변주된다. 문학이 다양한 매체들과 통섭하는 현대에서 한 시인의 초상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은 텍스트가 한 인물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읽어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들 텍스트는 윤희동이라는 인물

을 선택하여서 현실을 문학으로 이겨내고자 하였던 청년 시인의 표상을 관객들에게 전달하여 현재성을 획득했다. 영화 <동주>와 가무극 <윤희동, 달을 쏘다>는 서로 다른 형식을 통해 시인 윤희동의 다양한 면모를 조명하고, 이로써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 있는 텍스트들이었다.

References

- [1] Son, Mi-young, A Study on the Cooperative Patterns of Literature and Drama, 2017.
- [2] Kim, Eung-gyo, Movie Dongju and Te Aura of Yun Dong-ju, 2016.
- [3] Ji, Hyun-bae, Reproduction Codes for Cultural Contents of Yun Dongju's Poetry, 2017.
- [4] Moon, Sun-young, A Representation of Yun Dong-ju in Visual Image Contents, 2018.
- [5] Yang, Jin-oh, A Study on The Birth of a Poet-Centered on the Movie <Dongju>
- [6] Kim, Myung-seok, Dong-ju and Mong-gyu, The Age of Shameful Youth, 2018.
- [7] Yoo, Jun, A Study on Yun Dong-ju's poetry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ublime-Focusing on "the Cross"-, 2016.

※ 이 논문은 광운대학교 2019학년도 교내 학술연구비로 지원되었음.

